

靜菴 道學政治思想의 淵源 考察

서 인 회*

<目次>

I. 序論	III. 思想的 背景
II. 歷史的 背景	IV. 結論

<국문 초록>

麗末에 도입된 宋代 性理學은 관직 진출의 수단이나 개인적 학문 수양의 방법으로만 여겨지던 유학의 기능을 사회적 이념을 제시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러말 선초의 급변하는 역사 전개 과정에서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혁명과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한 새로운 禮制文化社會의 건설이라는 꿈을 당대에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꿈은 세종대에 이르러 三代 중 周代를 방불케 한다고 할 정도로 문명한 사회의 건설로 실현된다.

그러나 세조의 왕위찬탈과 연산군의 학정 등으로 반인륜적, 반문명적 상황의 도래로 이어진 시대적 상황에 대해 정암은 역사적 퇴보의 시기로, 퇴보의 관건은 지도층을 중심으로 모두가 利欲 추구의 삶에 빠져 天理나 公道를 추구한 문명한 사회로의 비전의 방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인식은 도덕적 실천 윤리인 도학에 기반한 정치, 즉 道學政治思想으로 귀결되어 진다.

宋代 정립된 도학사상은 堯舜이래 孔孟을 잇는 道統論에 기반해 修己治人

* 대전 둔원 고등학교 한문교사 / yawoorijin@hanmail.net

之學, 內聖外王之道로 일컬어지는 이상적 정치인 至治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至治를 통한 유가의 이상사회인 大同社會의 건설은 도학사상의 理想이며,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 현실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靜菴의 도학정치사상은 至治를 통한 문명한 사회의 건설을 당대에 현실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치이념이었으나 至治의 관건은 군주의 明德의 확립에 있는 것이므로 정암은 증중에게 ‘崇正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 네 구절은 그의 학문적, 정치적 이념의 집약으로 유학의 修己治人之學, 內聖外王之道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이처럼 정암의 도학정치사상은 堯舜과 孔孟이래의 진리의 전통 즉 道統을 계승하여 진리를 배운다는 믿음과, 진리를 현실에 이루어나가며, 진리의 역사 속에 동참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당대의 모순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根源處는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짧은 정치 활동기간 중에 개혁이 단행되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정암은 기묘사화의 희생양으로 賜死되었고 정치적으로 좌절하였다. 그러나 그의 도학정치사상은 후학들에게 문명한 사회 건설의 방향의 제시였으며, 그는 도학에 근본한 至治의 실현이라는 진리의 전통에 동참해 이상을 구현한 조선조 최초의 정치사상가로 우뚝 섰다 할 것이다.

【주제어】 趙光祖, 性理學, 道學政治, 至治

I. 序論

韓國의 儒學思想을 論함에 가장 활발한 연구의 주제는 近世朝鮮의 道學思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시대 이래로 유·불·도로 융화된 형태의 유학이 麗末 鮮初의 격변기를 거치며 조선조 500여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政治 이데올로기이자 傳統的 價値觀의 根幹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16세기 靜菴 趙光祖의 도학사상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栗谷은 宋代에 周濂溪가 있

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性理之學이 있음을 아는 것은 광조의 힘이다.’¹⁾라고 역설하였다. 孔孟 이래로 천년여의 세월동안 끊어졌던 道統을 이어 성리학의 비조가 된 濂溪에 비견될 만한 인물로 靜菴이 한국 유학사에 남긴 업적을 평가한 것이다.

靜菴은 조선 成宗 18년에 탄생하여 中宗 14년에 賜死하기까지 38년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中宗에 의해 정치적으로 발탁된 그가 정치의 일선에서 경륜을 펼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34세에서 38세까지의 만 4년간이었다. 이 시기는 건국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체제가 創業, 守成의 단계를 거치면서 생동감을 상실하고, 연산군의 학정과 패륜으로 인해 건국이념으로서의 유학은 근간을 잃고 와해된 때였다.

이런 현실에서 靜菴 도학정치사상은 ‘崇正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²⁾의 이념적 깃발을 선명하게 세우고 이를 통해서 孔孟이 꿈꾸고 程朱가 꿈꾸고 牧隱 이래 조선 건국의 선배들이 꿈꾼 유학적 이상사회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靜菴이 立朝한지 수년동안 士習과 民風이 크게 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개혁의지는 이미 사리사욕으로 부패한 勳舊 및 반정 공신들에 의해 己卯士禍로 이어져 정치적 좌절을 겪게 되었고, 결국 靜菴의 꿈은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실패와 함께 그 자신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실패와 죽음은 단순한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도리어 至治를 통해 유학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꿈을 기치로 삼은 수많은 유학적 지성들을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靜菴 조광조의 도학정치로 대변되는 至治主義的

1) 李珣, 『栗谷全書』 卷28, 「經筵日記」, “今之知有性理之學者, 光祖之力也.”

2) 이 네 구절은 그의 학문적, 정치적 이념이 집약으로 그가 경연에서 반복하여 언급한 것으로 유학의 修己治人之說, 內聖外王之道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정치개혁은 주로 당대의 정치적 성패와 관련하여 거론되어온 경향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실현해 냈던 구체적 실천 방법에만 주목하여 그 사상적 기반이나 철학적 사유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³⁾. 그러나 실천 유학적 특성이 강한 道學思想에 기반한 靜菴의 정치개혁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사상적 연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 논고는 靜菴의 정치이념의 이상형이었던 도학정치에 대한 사상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개혁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유학이 추구하는 이상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당대에 구현하고자 하는 유학적 지성의 한 전형으로서 靜菴의 면모를 새롭게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歷史的 背景

1. 生涯와 學問的 背景

靜菴 趙光祖는 성종 13년(1482년)에 한성에서 태어났다. 字는 孝直, 號는 靜菴으로, 始祖는 고려 때 조순대부 첨의중서사를 지낸 之壽이며, 후손들은 누대로 내려오면서 요직을 거친 고려 별족이다. 上世先系의 功烈은 차치하더라도 그는 개국공신 溫의 4대 孫이며, 조부는 成均館司禮를 지낸 증예조판서이며, 부친 元綱은 사헌부감찰을 지내고 증이조참판을 받은 권문세가 집안의 자제였다.

그러나 그의 가계에서는 일반 권문세가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암의 조부는

내가 상사(喪事)를 마치면서 양절공⁴⁾을 사모하고도 뜻을 두고 이루지 못하였

3) 이상성, 「精菴 道學의 存在論的 特性」, 『韓國思想과 文化』 제1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p.178.

다. 우리 문중의 자제로 탁립(卓立)하려고 하면서 혹 양절공의 뜻을 저버린다면, 내 비록 九泉下에서라도 벌을 내릴 것이다”⁵⁾

라고 하여 한양 조씨의 선조들은 孝友와 忠誠을 자손들에게 遺訓으로 내리고, 대대로 淸儉한 생활로 나라의 모범이 되고자 하였으니, 이러한 가풍은 당시의 양반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풍의 영향이 있었기에 靜菴이 17세가 되던 연산군 4년(1498년)의 戊午士禍와 23세이던 연산군 10년(1504년)의 甲子士禍, 25세 때의 中宗反正 등의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科擧에는 뜻을 두지 않고 聖賢의 학문을 익혀 求道하고자 하는 뜻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靜菴이 17세 되던 해에 戊午士禍의 여파로 평안도 청천강변의 회천으로 귀양 와 있던 寒暄堂 金宏弼의 문하에 들어가, 『小學』, 『近思錄』을 배우고 경전 등을 수학하게 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학문을 통해 익힌 바를 성실히 실행에 옮겼는데 이것은 중종 5년 10월에 참찬관 김세필이

생원 김식, 조광조 등이 김굉필의 학문을 이어받아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고, 관대를 벗지 않으며,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서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였다.⁶⁾

라고 하여, 당시 옛 성인들의 언행과, 성리학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일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는 조광조의 모습을 사료에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광조는 중종 5년(1510년) 29세에 진사시 합격 이후 중종 6년에서 중

4) 개국공신 溫의 시호로 世譜에 “양절이란 시호법에 ‘온화하고 어질고 낙을 좋아하며, 청렴하여 스스로 극복한다는 것을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5)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韓國人物儒學史 1』, 한길사, 1976, p.419.
 6) 『中宗實錄』 卷12, <5년 10월 癸巳>, “是時生員金湜, 趙光祖等, 傳金宏弼之學, 不放言不脫冠帶, 終日危坐, 如對賓客.”

종 10년까지 4년여의 천거기간을 거쳐 安瑒의 천거로 입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록에 “당시의 정암은 연세가 30이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 영수로 삼고 있었다.”, “정암이 일찍부터 김굉필의 문하로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斯文을 振起할 것을 임무로 삼고 있었다.”⁷⁾라는 말처럼 그가 초기 中宗代에 비견될 수 없는 인재였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후 중종 10년 8월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成均館 典籍으로 임명되니 그의 나이 34세에 정치 무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는 34세에 成均館 典籍을 시작으로 己卯士禍로 賜死되는 38세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司憲府監察, 禮曹佐郎, 司諫院正言을 거쳐 弘文館 校理·應教·典翰와 承政院 同副承旨, 副提學, 大司憲 등으로 벼슬의 품계도 밟지 않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였다. 이것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中宗代의 시대적 요구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退溪는 經筵에서

中宗이 求治를 목마르듯 하시어 바야흐로 三代至治를 일으키려 하시매 光祖 역시 不世의 遇로 생각하여 金淨, 金湜, 奇遵, 韓忠 등과 함께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한가지로 하여 크게 경장한 것이 있었으니...⁸⁾

라고 하여, 연산군 대에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약해진 왕권의 강화와 유교적 이념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중종의 요구와 일찍부터 성리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갖춘 존재인 靜菴과의 만남은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일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정암은

我朝가 開國이래 士林之禍가 不絶하여 君子가 國事에 힘써서 거의 성공될 때마다 敗亡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⁹⁾

- 7) 『中宗實錄』 卷12, <5년 10월 庚午>, “光祖少時, 受學於金宏弼, 以研窮性理, 振起斯文爲己任, 學者推爲士林領首.”
- 8) 李滉, 『靜菴集』 卷3, 「附錄·請褒增啓」, “中廟求治如渴, 將興三代至治, 光祖亦以爲不世之遇, 與金淨·金湜·奇遵·韓忠, 相與協力同心, 大有更張.”
- 9) 『靜菴集』 卷5, 「附錄·年譜 己卯七月」, “大抵我朝自開國以來, 士林之禍不絶, 若有君子力於國事, 庶幾有成則無不敗之時, 甚可懼也.”

라고 하여 士禍가 끊이지 않은 過去 歷史의 재현을 우려하였으며, 사회의 風土 속에서도 前代에 시행하지 못하였던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靜菴이 中宗反正 이후에 이루어진 不法의 特權을 근원적으로 塞絶코자 하였던 것이며¹⁰⁾, 이것을 계기로 하여 己卯士禍가 일어나 그는 다시 士禍의 희생양이 되었다.

至治中興을 이루어 國脈을 無窮토록 새롭게 하고자 한 정암 도학사상의 學統은 그가 스스로 일컬은 바와 같이 圃隱系統으로서 金宗直 金宏弼에서 淵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¹⁾. 유학이 도래된 삼국시대 이래로 麗末 鮮初의 학풍은 도학과 문학의 겸유에 있었던 바, 한훤당 김굉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순수한 도학에 치중하여 문학인 詞章學을 버리고 오로지 도덕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런즉 진정한 도학의 단초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는

대개 우리 동국의 선정이 도학에 있어서 비록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어나는 자 있으나 그 결과는 마침내 절의와 장구 문장의 사이에 있었거늘, 그 오로지 위기지학에 힘쓰고 참다운 실천으로 배움을 삼는 이를 구한다면 오직 한훤당이 그러하셨다. 선생께서는 난세를 당하고 험난을 무릅쓰면서 그를 스승으로 섬기셨다. 비록 그 당시 강론하시고 주고받으신 뜻은 얻어 들을 수가 없으나, 선생의 뒷날에 도를 향하는 정성과 학업에 뜻하심이 높기가 저와 같은 것을 보건대, 그 발단은 곧 여기에 있으셨다.¹²⁾

라고 하여, 정암 도학사상의 발단이 한훤당에서 말미암았음을 역설하

10) 이동준, 「十六世紀 韓國 性理學派의 歷史意識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大學 院 博士學位論文, 1975, p.127.

11) 이동준, 위의 논문, p.88.

12) 李滉, 『退溪集』 卷48, 「靜菴趙先生行狀」, “蓋我東國先王之於道學, 雖有不待文王而興者, 然其歸, 終在於節義章句文詞之間, 求其專事爲己, 眞實踐履爲學者, 惟寒暄爲然, 先生乃能當亂世, 冒險難而師事之, 雖其當日講論授受之旨, 有不可得而聞者, 觀先生後來嚮道之誠, 志業之卓如彼, 其發端是在於此矣.”

였다. 그러나 한훤당에서 발단이 된 도학은 정암에 이르러 一段의 발전을 가져왔으니, 栗谷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理學이 전해져오지 않았는데, 전 왕조(고려)의 정몽주가 그 단서를 드러냈으나 規矩가 정밀하지 못했고, 우리 왕조(조선)의 김굉필은 그 실마리를 접했으나 오히려 크게 드러나지 못했다가, 조광조가 道를 주창함에 이르러서는 배우는 이들이 모두 화합하듯 그를 追尊하였다. 지금 성리학이 있는 줄을 알게 된 것은 조광조의 힘이다.¹³⁾

라고 하여, 麗末 圃隱 계열의 學統을 이은 김굉필을 따라 그의 문하에서 道學을 수학하여 15세기 前·後로부터 이어온 學統을 계승하고 더욱 확장시켜 16세기에 이르러 정암으로 인하여 도학이 밝게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대해 중암(重庵) 김평묵(金平默)도

우리 조정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중화의 도를 가지고 야만적인 문화를 바꾸어 순수하고 잡되지 아니하니, 이에 한훤당 선생이 낳으시어 그 학문은 『小學』으로써 근본을 삼으시고, 한 번 전하여 정암 선생을 얻게 된 즉 『大學』의 明德·新民이 그 규모와 경계가 드러났다.¹⁴⁾

라고 하여, 한훤당이 조선의 유학적 문화 풍토에서 태어나 『小學』으로 실천 역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정암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大學』의 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⁵⁾. 退栗을 비롯한 重菴의 이러한 평가는 정암의 지치의 이념이 당대 현실에 나타난 정치적 난맥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조선조의 유

13) 李珣, 『栗谷全書』 卷28, 「經筵日記」, “我國理學無傳, 前朝鄭夢周, 始發其端, 而規矩不精, 我朝金宏弼, 接其緒, 而猶未大著, 及光祖倡達, 學者, 翕然推尊之, 今之知有性理之學者, 光祖之力也.”

14) 金平默, 『重菴集』 卷38, 「書示社中諸生」, “我朝受命, 用夏變夷, 純一不二, 是生寒暄先生, 其學以小學爲本, 一傳而得精菴先生, 則大學之明德新民, 其規模槩, 著矣.”

15)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425.

교 문화적 풍토와 도학적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中宗反正 초기의 社會·政治 狀況

조선초기의 정치사회의 전반적 상황은 러말 선초라는 격변기의 혼란한 상황을 해소하고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태종과 세조의 왕위 계승의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능한 왕들의 집권으로 인하여 왕권은 안정되었고, 개혁의 주도세력으로 서서히 등장하던 사람의 정치 문화 속에서, 조선은 안정적인 守成의 시대를 보냈다.

그러나 성종대의 사치와 연산군의 학정으로 인한 두 차례의 사회를 치르며 후대에 많은 정치적 부채를 남기게 되었고, 건국이후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두루 축적된 모순을 빠른 속도로 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에게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문제와 연산군의 학정이 남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청산과, 와해된 유교 국가로서의 기강 확립이 개혁의 과제로 부여되었다. 그러나 반정 초기에는 반정 공신들의 권력 장악으로 중종의 입지는 불안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산적된 개혁 과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한계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반정 공신들을 위시한 역대 훈구 공신들의 문제였다.

중종반정으로 인한 정국공신의 책봉이 모두 117명에 달하여 국가 재정은 심각한 위축 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이들의 위훈(僞勳) 논란은 그들의 도덕성의 부패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건국 이후 120여년이 지난 중종 초기는 절대적 특권을 차지한 공신들과 훈구세력들의 사리사욕으로 심각한 부패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백성의 경제적 파탄은 정치적 혼란만큼이나 심각한 상태였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반정 이후 유난히 빈번한 자연재해였다. 이

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확산은 인심의 불안정과 미신적 요소의 성행
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의 증중을 비롯한 정부의 대
응은 恐懼修省하는 자세와 인사에 관한 논의에 그쳤으며, 백성들을 위
무하는 적극적 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정치적 사리
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악용하는 신료도 있어, 당시의 혼란상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¹⁶⁾

이런 현실에서 모순과 구태를 타파해야 하는 개혁 담당자로서 반정의
주역들은 개혁을 완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의 결여와 정치이념
의 부재, 사리사욕 등으로 반정을 이용한 집단이었으므로, 그들 자신이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반정은 핵심 공신들의 사적인 이
해를 확대할 기회로 이용되었으며, 취약한 정치적·이념적 기반으로 인
해 이후의 정국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정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난맥상과 왕권을 뒤흔드는 역모
사건의 와중에, 대간들에 의해 벌어진 과거사 청산문제는 시대적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사림의 정치적 의도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크게 두 가
지로 집약되었는데 燕山君代의 정치적 희생자에 대한 복권문제와 文宗
의 왕비인 권씨 왕후를 복위해야 한다는 소릉 복원에 대한 주장이 그것
이었다. 결국 그들의 복권문제는 세조대와 연산군대의 정치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도덕적, 역사적 청산문제에 사
림들의 주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증중도 대신들
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는 와중에 사림들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해 가는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¹⁷⁾ 그들은 성종에 의해 누대로 정권
을 장악해 오던 훈구파의 견제 세력으로 발탁되어 정치에 진출하기 시
작한 포은 계열의 士林派로, 爲民思想과 義理精神을 근본으로 하여 잘
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누대로 이어지던 특권의식과 각종 구태를 혁파

16) 이상성,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심산, 2003, p.35.

17) 정두희, 『조광조』, 아카넷, 2000, p.63.

하고자 하였다.

정암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은 상술한 바와 같다. 중종은 성종이 그러한 바와 같이 공신들의 권력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사람을 선택했으며 ‘나이 서른이 되기도 전에 사람의 영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정암을 누적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사람의 정치사상은 그 정치사상가가 자기 시대의 위기와 무질서를 파악하고, 그러한 위기와 무질서에 진단을 가하고, 또 그 진단 결과에 따른 대안을 모색한 결과물¹⁸⁾이라고 생각할 때 정암은 중종과는 서로 다른 위기의식과 대안을 갖고 있었다. 중종은 그 卽位敎書에서

근년에 옛 법도를 마구 고쳐서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하고 한결같이 祖宗이 이룬 법을 준수할 것이다¹⁹⁾

라고 하였듯이 연산군대의 패륜과 학정으로 인한 국가기강의 와해를 위기로 파악하여 연산군 이전의 성현을 완전히 회복하여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암은 첫째, 역사적 퇴보의 위기 둘째, 그 퇴보의 관건은 지도층을 중심으로 모두가 이욕추구의 삶에 빠져 들어 天理와 公道를 추구하는 문명한 사회 비전의 방향을 상실한 것 셋째, 그것은 결국 유교적 문화의 몰락을 넘어서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국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정암의 개혁의지는 天理의 動的 變化 法則을 따르고 利慾의 폐단을 근절하려는 데서 출발하여 민의에 부합되는 본질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었다.

이렇듯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여 연산군 이전으로의 복귀만을 원하

18) 정윤재,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9) 『中宗實錄』 卷1, <1年 9月 2日 戊寅>, “近年變亂舊章, 新立條科, 竝皆蕩除, 一遵祖宗成憲.”

는 중종의 시대 정신과 본질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암의 시대 정신과는 미묘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思想的 背景

1. 道學的 연원과 ‘至治’의 이상

중종 10년(1515)에 알성시를 통해 입조하게 된 정암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 도학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개혁을 단행해 나간다. 도덕적 실천 윤리에 기반한 修己의 道를 治人의 道로 확장해 나간 정암의 정치적 지향은 유가의 정통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道學政治’의 실현, ‘至治主義’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 정암에 의해 한국유학사에 등장한 도학의 개념은 宋代에 이르러 등장한 신개념의 유학을 이르는 말이다. 도학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宋史』에 의하면

道學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다. 三代가 융성할 때 天子가 이 道로써 정사를 베풀었고, 대신과 백관 및 유사들도 이 道로써 직책을 맡았으며, 학교[黨庠術序]에서 스승과 제자들도 이 道로써 강습을 하였고, 사방의 백성들은 이 道를 쓰기는 하였으나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天地 사이에 가득 차서 一民一物이라도 그 본성을 이룸에 있어서 이 道의 은택을 입지 않음이 없었다.²⁰⁾

라 하여, 이런 도를 계승하고 실천한 새로운 학자들에 대한 열전을 두었다. 이것은 중국 고대 성현들의 道에 근본한 이상적 정치²¹⁾를 의미하

20) 『宋史』, 卷427, 「道學傳」, “道學之名, 古無是也, 三代盛時, 天子以是道爲政教, 大臣百官有司以是道爲職業, 黨庠術序師弟子, 以是道爲講習, 四方百姓, 日用是道而不知, 是故盈復載之間, 無一民一物不被是道之澤, 以遂其性於欺時也.”

21) 李相星, 「精庵 趙光祖의 道學思想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는 말이며 성현의 도와 제왕의 법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²²⁾의 이상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학정치란 이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성현의 도와 제왕의 법도에 근거하여 펼쳐진 이상적 정치를 의미한다.

본래 ‘至治’라는 이상적 정치의 개념은 書經 君陳篇에 처음 나온다. 周公이 돌아간 뒤에 成王이 君陳에게 周公의 업무를 맡기면서, 周公의 교훈을 계승하여 백성을 다스리도록 한 뒤에, “나는 들으니 ‘지극한 정치는 향기로워 신명을 감동시키니, 黍稷의 제물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이 오직 향기롭다’하였다.”²³⁾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도자의 明德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이상적 정치를 지칭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실천에 의하여 당시의 君民을 이상사회를 실현시킨 堯舜時代의 君民으로 만들어 직접 堯舜三代의 日月을 눈앞에 출현시키려는 이상 정치의 현실적 실천 운동을 말한다. 즉 이상사회의 모습인 大同社會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실천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그대로 유학의 修己治人之 방법론에 근거한 것이며 孔子가 꿈꾼 治世를 이루는 정치이며, 孟子가 제시한 王道政治의 이상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孟子 이후 송대 성리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상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으며 적어도 송대 성리학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漢唐의 유학은 이런 이상의 확인과 실천으로부터 현격하게 괴리된 것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송대 도학자들은 공맹의 본원유학의 정신을 계승하여 修己治人之道를 재정립하고, 天理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 삶에서 인간에게 마땅히 주어진 仁義道德을 실천하여 聖人을 이상으로 삼는 眞儒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는 왕도정치의 실천을 통하여 治世의 이상을 구현하여 역사적으로는 이런 실천이 곧 진리의 전통, 즉 도통의

2000, p.25.

22) 李東俊, 「趙精庵의 道學思想에 對한 考察」, 『同大論叢』 제2집, 同德女子大學校, 1972, p.67.

23) 『書經』, 「君陳篇」, “我聞曰, 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

계승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宋代의 성리학자들은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孟子’로 이어지는 도통의 체계를 세웠으며 孔孟의 正脈을 잇게 되는 도학 성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 체계의 확립은 공맹의 사상과 이념의 실천을 통해 주공이 이룩한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소산이며 더 나아가 유가의 이상향인 ‘至治’를 실천하려는 현실적 정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무릇 道學이란 格致하여 善을 밝히고 誠正으로 몸을 닦아서 몸에 蘊蓄하여서는 天德이 되고 정치에 베풀어서는 王道가 되는 것이다.²⁴⁾

라고 하여, 도학이 修己治人之學, 또는 內聖外王之道를 현실에 구현하여 至治를 이루고자 하는 사상임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至治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孔子는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仁을 근본으로 하여 德과 禮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仁을 근본으로 人格完成을 이룬 爲政者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孔子의 德治사상은 孟子의 王道정치사상으로 계승되어 孟子는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仁義道德을 실천하는 治者의 德治를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 春秋戰國時代의 혼란상의 원인을 不仁和 不德에서 찾은 공맹의 인식에서는 治者의 德治야말로 난세를 통일하고 혼란한 사회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根源處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至治主義 혹은 道學政治 실현의 관건은 明德, 특히 君主의 修己를 통한 明德의 확립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맹자는 利로써 통치의 방법을 묻는 梁惠王에게 “오직 仁義가 있을 뿐이다”²⁵⁾라고 하여 仁

24) 李珣, 『栗谷全書』 卷15, 「東湖問答」, “夫道學者, 格致以明乎善, 誠正以修其身, 蘊諸躬則爲天德, 施之政則爲王道.”

義를 근본으로 王道政治의 실행을 통치자에게 요구하였으며, 정암도

임금의 마음은 出治의 근본이니 근본이 올바르지 않으면 정치의 요체가 의거하여 확립할 수 없고 教化가 그에 따라 실행될 수 없다.²⁶⁾

上으로부터 날로 愼獨誠實工夫를 다하여 終始不變하면 治化를 이룰 것입니다.²⁷⁾

라고 하여, 至治의 관건인 君主의 明德에 근거한 마음의 확립과 동시에 專一한 마음으로 誠實함을 다하는 治人으로서의 통치자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治國하는 所以는 道일 따름이니, 이른 바 道는 本性을 따름을 의미한다. 무릇 性이 모두 있는지라 道가 없는 곳이 없으니, 크게는 禮樂刑政으로부터 작게는 制度文爲가 다 인위적인 學을 빌지 않고 각기 當然之理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古今帝王이 함께 말미암아 다스린 바요 天地에 充塞하고 古今을 貫通하는 것이로되, 실로 吾心의 內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循하면 國治하고 失하면 國難하여 須臾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²⁸⁾

라고 하여, 道學에 근거한 帝王의 법도를 따라 王道를 구현하는 것이 君主가 가져야 할 마음의 근본이라 하였다. 또한,

學者는 반드시 聖賢으로써 期하고, 人主는 唐虞三代之治로 期하여, 이와 같이 立志하고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에 用功하면, 漸次 聖賢之域과 堯舜之治에 이르

25) 『孟子』, 「梁惠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26) 李滉, 『靜菴集』 卷6, 「附錄·行狀」, “以爲君心出治之本也, 其本不正, 則政體無依而立, 教化無由而行矣.”

27) 趙光祖, 『靜菴集』 卷3, 「參贊官時啓一」, “惟願自上日加愼獨誠實工夫, 終始不渝則治, 化可臻矣.”

28) 趙光祖, 『靜菴集』 卷2, 「謁聖試策」, “所以治國者, 道而已, 所謂道者, 率性之謂也, 蓋性無不有, 故道無不在, 大而禮樂刑政, 小而制度文爲, 不假人力之爲, 而莫不各有當然之理, 是乃古今帝王所共由爲治, 而充塞天地, 貫徹古今, 而實未嘗外乎吾心之內, 循之則國治, 失之則國亂, 不可須臾之可離也.”

게 될 것 입니다. 다만 한갓 高遠함에 힘쓰고 實功을 하지 않으면 날로 浮虛한 데로 나아갈 것입니다.²⁹⁾

라고 하여, 君主가 格致誠正을 근거하면 聖賢之學과 堯舜之治가 이루어져 唐虞三代之 理想社會 건설이 가능하며, 이것은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王道政治의 실현을 이루려는 治人之道 역시 道學에 근본한 修己의 바탕이 관건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유학사에서 최초로 도학정치이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정암은,

우리의 임금을 요임금과 순임금과 같이 만들고 우리 백성을 하·은·주 삼대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³⁰⁾

고 하여, 유가의 이상정치의 실현인 至治를 그 정치의 목적으로 뚜렷이 밝히고,

致君澤民과 興起斯文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다.³¹⁾

고 하여, 이런 至治의 실천을 통한 이상사회의 구현을 자신의 시대적 소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암은 “나는 선생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심을 실로 濂溪가 宋에 태어남과 같다고 생각한다.”³²⁾고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암의 의미는 宋代에 孟子 이후 千年不傳의 道統을 계승하고 도학을 확립한 濂

29) 趙光祖, 『靜菴集』 卷3, 「侍讀官時啓六」, “學者以聖賢爲期, 未必卽至聖賢之域, 人主以唐虞三代之爲期, 未必卽致唐虞三代之治, 然立志如此, 而用功於格致誠正, 則漸至於聖賢之域, 堯舜之治矣, 若徒驚高遠, 而不下實功, 則日趨浮虛之地而已.”

30) 李滉, 『靜菴集』 卷6, 「附錄·行狀」, “謂吾君, 可以爲堯舜, 謂吾民, 可以躋仁壽.”

31) 李滉, 『靜菴集』 卷6, 「附錄·行狀」, “以治君澤民, 興起斯文, 爲己任.”

32) 宋時烈, 『靜菴集』 卷4, 「深谷書院講堂記」, “余以爲先生之生於我東者, 實如濂溪之於宋朝也.”

溪의 공과 같은 것이라 평가하였다. 또한,

殷師이후로 상하 數千年間 道學이 堙滅하여 사이에 鄭圃隱·金寒暄 諸賢이 전후 倡明하였다. 그러나 洛建의 淵源을 계승하고 唐虞의 熙雍을 뜻하여 卓然히 明德 新民으로 이 學의 표준을 삼은 자는 선생으로부터 비롯함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³³⁾

라고 하여, 정암이 堯舜이래의 道統을 계승하여 理想政治를 구현하고자 하였음과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明德 新民에 근거한 도학정치 구현이라는 사회적 비전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로 정암의 짧은 생애를 통해 그가 이루고자 했던 ‘道學政治’의 실현, ‘至治主義’의 이상은 仁義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 윤리에 기반한 修己의 학문적 기반 위에 仁義道德을 사회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至治를 당대의 현실에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근본 유학의 이상향인 大同社會의 실현을 위해 孔孟이 ‘至治’를 기치로 삼았던 德治와 王道政治를 계승한다는 의식의 소산이었다.

결국 이것은 정암 스스로의 학문이 진리를 배운다는 믿음과 함께, 스스로의 현실이 그런 진리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至治의 場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런 양면적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堯舜과 孔孟을 계승하는 진리의 역사 속에 동참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암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중종조의 와해된 현실을 개혁해 문명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至治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조선조 최초의 정치 사상가였다.

2. 至治를 통한 文明社會建設

도학적 요소를 지닌 실천적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33) 宋時烈, 『靜菴集』 卷4, 「綾州謫廬遺墟追慕碑記」, “自殷師以後, 上下數千年間, 道學堙晦, 間有鄭圃隱, 金寒暄諸賢, 前後倡明之, 然其承洛建之淵源, 志唐虞之熙雍, 卓然以明德新民, 爲此學之標準者, 則肇自先生, 不可誣也.”

忠烈王 때 安珮에 의해 元으로부터 수입되면서부터였다. 元代의 성리학의 특징인 도덕적 실천주의는 정치적, 사상적 퇴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성들에게 신선한 사상으로 급부상하여 그들의 이념이 될 수 있었다. 성리학을 토대로 한 신진사류들은 恭愍王代에 개혁의 주체로 나서며 麗末에 와서는 가장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麗末의 신진사류들은 그들의 이념에 따라 구체적 현실의 國內外的 諸問題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회개혁의 선봉이 되었다.

그러나 麗末 정치적 위기의 심화 과정에서 역사인식에 따른 입장의 차이는 그들의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圃隱 정몽주, 冶隱 길재, 牧隱 이색 등은 更張의 시기로, 정도전, 조준, 이성계 등은 창업의 시기로 판단해 필연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포은의 순국을 끝으로 節義派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암이 정몽주, 김종직, 김굉필로 이어지는 道統의 설정을 통해 春秋大義 정신과 도학사상의 연원을 삼으면서 조선 왕조의 正統理念의 根源處가 되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조선 왕조를 건국한 혁명과 성리학자인 삼봉과 그 계승자 양촌은 자신들의 역사적 선택과 행동의 기반으로 삼은 사상이 도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⁴⁾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창업기의 역사 현실 속에서 노불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하여 배격하였으며 인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륜지학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은 도덕적 실천주의에 입각한 성리학적 대응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한 새로운 예제문화사회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결국 러말 선초의 성리학자들은 현실 상황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이념의 모델을 도학사상으로 삼았으며 유가의 이상향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의 마련을 위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격변기의 정치, 사

34) 李相星, 「精庵 趙光祖의 道學思想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66.

회, 경제의 혼란상에 대해 학교의 설립, 經學에 입각한 정치, 朱子家禮의 시행, 田制改革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의 보편화와 도학정치의 도입, 도불사상의 극복과 仁政에 의한 덕치를 타개책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元明 교체기의 국외적 상황에 人道主義를 표방한 明의 승인이라는 대응 방식을 통해 傳統精神의 繼承과 春秋義理 및 華夷論을 확고히 하였다.

조선의 역사상 創業期를 지나 守成期로 접어든 세종대는 創業期 성리학자들이 수립한 禮制文化의 전통이 높은 수준의 문명사회에 이르게 되었으며 ‘人道를 實行하고 禮樂으로 통치’하는 정통 유학적 정치이념이 꽃피우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정암은 중국의 이상사회인 三代 가운데 周代의 문화에 비견될 만하다고 하여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여겼다. 또한 세종대는 文治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정암의 도학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졌던 때로 평가된다.³⁵⁾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사회적 사치와 지도층의 타락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16세기는 정암이 정치적 활동에 나선 시기이며 更張의 시기로 인식된다. 정암은 이러한 현실에서 麗末 鮮初에 역사적 전면에서 물러나 의리정신을 지켰던 綱常派의 節義精神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그리하여 정몽주로부터 이어지는 道統의 확립을 통하여 당대 사회의 큰 문제인 利源의 방지와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예제문명사회를 복원하고 보다 진전된 이상사회의 건설을 시행하고자하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유학적 정치이념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세종대의 문명이 지난 뒤의 연산군의 학정과 두 차례의 사화는 정암에게 忠身篤行을 修己治人の 근본으로 삼아 小學을 중심으로 理學에 힘쓰던 종래의 성리학에만 머무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다. 즉 도학이 지치의 관건이며 특히 군주가 도학을 해야 한다는 통치자의 수신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반정 세력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의 개혁의지와 반정 공신들

35) 유승국,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88, p.55.

의 부조리에 대한 사림의 도전 정신은 정암으로 하여금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이상사회로 끌어올릴 수 있는 不世의 恩遇로 여기게 했다.

그러므로

도학을 숭상하고, 인심을 바로잡으며, 성현을 법 받고, 지극한 정치를 일으키는 말로 반복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³⁶⁾

고 하여, 중종에게 至人의 통치자로 至治를 이룰 것을 권하고

자기를 위하는 학문에 힘쓰면서도 남에게 알려질까 걱정하면 곧 至人입니다. 임금은 천하에 한 가지 물건도 내가 아껴야 하지 않을 것이 없고 한 가지 일도 내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껴서 인의의 도를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³⁷⁾

라고 하여, 仁義의 道를 정성껏 행하는 至人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삼대의 다스림을 이제 다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어찌 전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리가 없겠습니까? 성상은 먼저 자기의 덕을 길러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데까지 미루어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성심으로 복종하여 교화를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교화될 것입니다 만일 나의 덕을 닦지 못하고 사무적 일만을 잘 꾸미려 한다면 또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³⁸⁾

36) 趙光祖, 『靜菴集』 卷1, 「附錄·事實」, “經席之上, 每以崇道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之說, 反覆啓達.”

37) 『中宗實錄』, <12년 11월 20일>, “務爲己之學, 而恐見知於人, 則是至人也, 人主其親天下, 無一物非吾之所當愛, 無一事非吾之所當愛, 仁民愛物, 務行仁義之道可矣.”

38) 趙光祖, 『靜菴集』 卷3, 「參贊官時啓一」, “三代之治, 今可復致者, 雖不可易言, 豈全無致之之道乎, 自上先養己德, 推之行事, 則人皆誠服, 不期化而自化矣, 若吾德不修, 而修飾於事爲之間, 則亦何益乎.”

라고 하여 통치자의 德治로 인한 教化가 三代의 정치인 이상정치의 실현 방도임을 역설하였으며 仁政에 바탕한 王道政治의 구현이 아닌 형식적인 정치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4년여의 기간 중에 정암에 의해 개혁이 단행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신씨 복위 문제, 정몽주, 김굉필의 문묘중사, 소격서혁과, 노산군 제사, 정국공신 개정 문제 등으로, 당대의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이들은 仁政의 실현을 요구하고, 대의명분에 입각한 풍조를 조장하며, 似是而非한 異端을 배격하고, 부조리한 역사적 과제를 청산하는 문제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勳舊派의 반격으로 己卯士禍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정암은 賜死되고 그는 정치적 좌절을 겪지만 그의 역사 인식과 정치사상이 갖는 특징은 조선 초기의 정치이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은 일찍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실현한 최초의 인물로서 조광조를 평가한 데서도 나타난다. 栗谷은

우리나라가 덕을 쌓고 인을 쌓아 대대로 정치를 잘해 왔다고는 하나, 일찍이 도학으로 군주에게 고한 사람이 없었다. 오직 조문정이 성리학으로 중종을 보필하여 세도가 거의 변화하려 하였는데, 남곤의 참소하는 입부리가 칼날보다 더욱 참독하여 선량한 이들을 모두 없애고 나라를 병들게 하였다.³⁹⁾

라고 하여, 정암이 도학정치의 창시자로 후학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상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의 이상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또한

배우는 이들이 이로부터 리학을 으뜸으로 여기고 왕도를 귀히 여기며 패도를 천하게 여길 줄을 알게 하였으니, 그가 사도에 공이 있는 것은 인멸하지 아니하

39) 李珣, 『栗谷全書』 卷28, 「經筵日記」, “我國家積德累仁, 世躋治道, 而未嘗聞有以道學告君上者, 惟趙文正以性理之學, 輔我中宗, 世道幾變, 而袞之讒喙, 慘於鉞鋒, 芟刈良善, 殄瘁邦國.”

리라. 그래서 후인이 우러러 보기를 태산과 북두처럼 하고, 임금이 내리는 은총이 갈수록 더욱 융숭하였다.⁴⁰⁾

라고 하여, 도학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의 실현으로 근본 유학의 이상향을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하여,堯舜과 孔孟을 이은 道統속에서 더욱 뚜렷한 생명력을 갖고 공헌한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공이 태산북두와 같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암은 지치를 통한 문명사회건설을 정치의 이념으로 삼아, 건국의 시기에 절의를 실현했던 강상파의 대의정신을 되살려 도통으로 확립하고, 러말 선초의 성리학자들이 꿈꿔왔던 건국의 이념인 人道를 實行하고 禮樂으로 통치되는 문명한 사회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사명 의식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도학에 기반한 정치 즉 지치의 이상적인 정치가 현실에 실현될 수 있음을 4년여의 정치활동 중에 일관되게 관철하여, 시습과 민풍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가 실행한 도학정치는 요순의 군민을 현세의 군민으로 요순의 사회를 당대의 사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문명한 국가의 건설에 대한 비전의 제시였으므로 후대에 退栗로 이어지는 정치적, 사상적 유산을 남긴 것이었기에 그가 조선 유학사에 남긴 업적은 태산북두와 같다고 평가한 것이었다.

IV. 결론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6세기 초 한국 유학사에 등장한 정암의 도학정치사상은 ‘至治를 통한 문명사회건설’이라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사회적 비전의 제시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40) 李珣, 『栗谷全書』 卷28, 「經筵日記」, “學者, 從此知理之可宗, 王可貴, 而伯可賤, 其有功于斯道, 不可民也, 後人仰之 若泰山北斗, 寵命之錫久, 而愈隆也.”

유학이 전래된 삼국시대 이래로 개인적 학문 수양의 방법으로 혹은 관직 진출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려말에 도입된 송대 성리학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麗末鮮初의 급변하는 역사 전개 과정에서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혁명과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한 새로운 예제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꿈을 당대에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꿈은 세종대에 이르러 三代 중 周代를 방불케 한다고 할 정도로 문명한 사회의 건설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세조의 왕위찬탈과 연산군의 학정 등으로 반인륜적, 반문명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정암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퇴보의 시기로, 퇴보의 관건은 지도층을 중심으로 모두가 利欲추구의 삶에 빠져 天理나 公道를 추구한 문명한 사회로의 비전의 방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은 도덕적 실천 윤리인 도학에 기반한 정치, 즉 도학정치사상으로 귀결되어진다.

宋代 정립된 도학사상은 堯舜이래 孔孟을 잇는 道統論에 기반해 修己治人之學, 內聖外王之道로 일컬어지는 이상적 정치인 至治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치를 통한 유가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의 건설은 도학사상의 이상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孔孟이 이루고자 하였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 현실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암의 도학정치사상은 至治를 통한 문명한 사회의 건설을 당대에 현실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치이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치의 관건은 군주의 명덕의 확립에 있는 것이므로 정암은 중종에게 ‘崇正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 네 구절은 그의 학문적, 정치적 이념의 집약으로 유학의 修己治人之學, 內聖外王之道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이처럼 정암의 도학정치사상은 堯舜과 孔孟이래의 진리의 전통 즉 도통을 계승하여 진리를 배운다는 믿음과 진리를 현실에 이루어나가며 진리의 역사 속에 동참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당

대의 모순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根源處는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짧은 정치 활동 기간 중에 개혁이 단행되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정암은 기묘사화의 희생양으로 사사되었고 정치적으로 좌절하였다. 그러나 그의 도학정치사상은 후학들에 게 문명한 사회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는 도학에 근본한 지치의 실현이라는 진리의 전통에 동참해, 이상을 구현한 조선조 최초의 정치사상가로 우뚝 섰다 할 것이다.

<參考 文獻>

- 『書經』 『孟子』 『論語』 『中宗實錄』 『宋史』
金平默, 『重菴集』, 『韓國文集叢刊』 319-320, 한국고전번역원.
李珥,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44-45, 한국고전번역원.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1, 한국고전번역원.
趙光祖, 『靜菴集』, 『韓國文集叢刊』 22, 한국고전번역원.
- 유승국,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88.
李東俊, 「趙精庵의 道學思想에 對한 考察」, 『同大論叢』 제2집, 同德女子大學校, 1972.
——, 「十六世紀 韓國 性理學派의 歷史意識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5.
李相星, 「精庵 趙光祖의 道學思想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 「精庵 道學의 存在論的 特性」, 『韓國思想과 文化』 제1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심산, 2003.
정두희, 『조광조』, 아카넷, 2000.
정윤재,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韓國人物儒學史 1』, 한길사, 1976.

Abstract

*Tracing the Origin of Jeong-arm's Moral Political Ideology / Seo In Hee**

Seong-Ri Hahk(性理學), Neo-Confucianism in the Chinese Song Dynasty introduced at the late Koryeo Dynasty has changed the function of onfucianism,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means of entering government service or achieving academic goals, into political ideology to suggest social philosophy. In particular, at the late period of Koryeo Dynasty, the revolutionary scholars of Seong-Ri Hahk tried to realize their dream of building new Yae-Jae Cultural Society(禮制文化史會), which, when it came to the period of King Saejong, came true certainly enough to remind the Age of Joo in China.

However, Jeong-arm(靜菴) criticized that King Sae-jo'(世祖)s seizing the throne and King Yeon-san(連山)'s tyranny brought about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nti-civilization, leading to the historic retrogression. He also thought that it was especially serious for people in the leadership to lose the vision toward cultivated society. His awareness of those worrying reality resulted in Moral Political Ideology, based on Moral Philosophy, a practical moral idea.

Moral Philosophy(道學政治) established during the Song Dynasty means Ji-Chi(至治), an deal politics represented by Soo-Ji-Chi-In-Ji-Hahk(修己治人之學) and Nae-Seong-Wae-Wang-Ji-Doh(內聖外王之道) and is rooted from Doh-Tong(道統) Theory which continued through the Age of Yo and Syun and Mencius. Establishing Dae-Dong Society(大同社會) by a means of Ji-Chi is thought an ideal of Moral Philosophy and an active, practical way of

* DaeJeon Dunwon High School, Teacher / yawoorijin@hanmail.net

fulfilling a dream.

Moral Philosophy was Jeong-arm's political belief to make a civilized society through Gi-Chi come true. But the success of Ji-Chi depended on a King having a virtue, so he emphasized Soong-Jeong-Hahk(崇正學), Jeong-in-sim(正人心), Beob-Seong-Hyon(法聖賢), and Heu-Ji-Chi(興至治) over and over to the current king, Joong-jong. These four phrases are not only the essence of his academic and political belief but also another way of expressing Soo-Ji-Chi-In-Ji-Hahk and Nae-Seong-Wae-Wang-Ji-Doh.

As you can see, Jeong-arm's Moral Philosophy is based on a belief that since the period of Yo-Soon(堯舜) and Mencius, people succeeded to the tradition of truth, Doh-Tong and learned truth. It's also grounded on another belief that truth has to be pursued in a real life and people are supposed to take part in the history of truth.

We can say that his awareness of the conflicting issues and his will to resolve them originated from these beliefs. He was involved in several social reforms and ended up being killed as a sacrifice of Gi-Myo Sa-Hwa(己卯士禍). Even though he politically failed, he led young followers to build a civilized society and will be remembered as the first political thought leader of Chosun Dynasty who realized Ji-Chi based on Moral Philosophy.

【Key words】 Jo Kwang jo(趙光祖), Seong-Ri Hahk(性理學),
Moral Philosophy(道學政治), Ji-Chi(至治)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5월 20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